

“학생·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자유 위한 투쟁”

70년대 민주화운동 사랑방 ‘봉심정’

<13>박현옥

루사·KSCF 통한 유신항거... 전남대교육지표 사건 정점 YWCA 활동 일반시민 의식화... “민주역사는 한줄기”

“자유를 위한 투쟁은 당연했다.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시민은 모두 한 마음으로 시대 속에 깨어나길 원했다.”

박현옥(66)씨는 유신체제 속에서 루사, KSCF, YWCA 등을 활동하면서 학생운동을 넘어 일반시민의 의식화 민중운동에 힘썼다.

1975년 전남대 영문과에 입학한 박씨는 교내동아리인 독서토론회(루사) 사회과학스터디와 KSCF 활동을 시작했다.

정보와 형사와 상담지도관의 감시 속에서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전남대 서클은 대외적 공식활동이 불가능했다. 이에 박씨와 장석웅, 이세천, 조봉훈, 김은경 등은 기독교 운동권으로 결집해 유신타도를 위한 전국 청년 조직으로 활동했다.

상황은 자연스럽게 교내를 넘어 교외로 활성화됐고, 종교단체 모임에는 기독교인

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사회활동을 위해 장소 확보가 가능한 기독교단체로 민주화운동권 사람들이 흡수됐기 때문.

신광교회, 한빛교회, 양림교회 등에서 민주운동가들은 모임을 가지면서 조비오 신부, 조아라 여사 등의 지원 아래 민주화 운동을 이어갔다.

민청학련 이후 KSCF는 노동, 농민, 현장(사회운동)을 중심으로 노동현장에서 사회조사 활동과 야학을 진행했다.

박씨는 KSCF에 속해 반유신 유신독재 항거 방향과 진술을 연구했다.

1976년 KSCF 소속 김영종의 주도로 4·19 문학반 시위가 일어나면서 조직이 드러났고 박씨는 제1차참대상이 됐다.

그는 YWCA에 속해 조아라 회장 아래서 유신독재 대항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다.



박현옥(66)씨는 전남대 75학번으로 입학해 유신체제 속에서 루사, KSCF, YWCA 등을 활동하면서 학생운동을 넘어 일반시민의 의식화 민중운동에 힘썼다.

서클 개념아래 최초로 남녀공학청년회가 꾸려졌고 6월 항쟁 본부 등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학교밖의 모든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보적 철학을 가진 목사와의 스터디, 함석헌의 연구강연 등이 진행됐다.

대중강좌에 집중된 YWCA 강연은 일반인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개방했기 때문에 도청 앞을 오가는 모든 문화인, 문학인, 정치인, 사회단체, 기자 등이 어울려 민주화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다.

강연회에 참여한 전국 민주인사들은 강의료 없이 자비로 방청했고, 광주 청년대 시민을 위한 문화, 정치, 사회, 반유신, 민주화를 주제로 뜻깊은 강연을 선보였다.

YWCA강당에는 매년 400~500여명의 일반 시민이 모여 만석을 이뤘고, 광주시민들의 민주역량은 커져만 갔다.

대중강연은 정보국의 압력에도 조아라 여사 등 기독교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대중을 선도하고 조직 의식화 하는 작

업은 봉심정에서 이뤄졌다.

박씨는 “그 곳은 민주화운동을 하던 모든 세대의 결집 장소”였다고 회상했다.

교내 서클 등은 학습모임을 통해 자율로 공부하던 것을 토대로 봉심정의 민청학련 세대(김경길, 이강, 박세정, 윤강욱, 윤한봉)와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갔다.

시기지에서 떨어진 봉심정에는 영문과 직속선배인 김남주가 기거하고 있었고, 교육학 이론서, 권위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사상을 담은 민중운동에 대한 서적을 읽고 정세분석에 몰입했다.

또한 민중운동을 위한 현장 조직과 의식화 작업의 진술을 담은 책을 통해 선배들과 함께 운동권이 나아갈 방향을 구축했다.

1978년, 박씨는 전남대 교수들의 ‘우리들의 교육지표’ 공표 이후 전남대-조선대-기독교학생회와 연계해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유인물을 작성한다.

대규모 시위인 만큼 가리방으로 한장한 장 만들 여유가 없어 YWCA에 부탁해 회원지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에 들어갔다.

이는 최초로 인쇄소에서 나온 대량 유인물이다.

박씨는 노조헌 등과 역할 분담 후 녹두서점 김상운에게 상황을 전하고 연락망을 풀기 시작했다.

전남대교육지표 사건은 유신체제 이후 최초 대규모 가두시위로 학생들은 전남대 도서관 점거 농성(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박씨는 이 사건 주모자로 색출돼 수사와 열 밀실에 끌려가 아침 동이 틀때까지 각목 등으로 심한 구타를 당해야 했다.

그는 까맣게 피멍이 든 상황에도 이를 악물고 죽는다는 각오로 단 한마디도 말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방학이 끝나고 9월 개학 때 전국 대학교 학생들 모두가 시위에 돌입했다. 이때 전국 학생 1천여명 이상이 구속됐고, 이는 유신종말의 시작이었다.

박씨는 “4·19, 한일합병반대, 민청학련, 긴급조치9호 세대는 엄혹한 상황 속에서 민족의 역사와 미래를 써나간 하나의 줄기”라면서 “의병활동부터 학생운동까지 민족의 미래가 어두울 때 민초가 일어났듯,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은 뿌리깊고 세대와 세대로 이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역할을 한 봉심정은 의미깊다”면서 “봉심정은 작은 소그룹들이 모이는 좁은 장소였지만 그 결과는 참대했다”고 평가했다. /오복기자



15일 광산구 소재 임촌농장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자원봉사단 발대식에서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제공)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자원봉사단 출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자원봉사단이 15일 광산구 소재 임촌농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발대식에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80년대 민중항쟁을 통해 5·18 민주 유공자들은 살아 움직이는 민주주의 역사였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살아있는 민주주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민 국회의원은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원들이 함께 지역공동체와 시민의 안전과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다는 점이 뜻깊다”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5·18정신의 나눔과 연대를 알리면서 공동체 회복에 열매를 맺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

종민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간사를 맡았으며 국가보훈처가 소속기관이다”면서 “계류되어 있는 5·18 유공자 관련 법안 등 올해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5·18정신을 계승,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 자원봉사단 단장으로 조규연(전)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운영팀장에 안철우 회원, 나승재·박노택·범일균·유병광·이용진·정용명·황의수·황창욱 회원이 단원으로 선임됐다. /안재영기자

전두환 회고록 손배소 내일 선고

5·18 왜곡 및 관련자 명예훼손 여부 쟁점...1심은 ‘5월 단체’ 승소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년 만에 마무리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4개 5·18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17일 연다.

지난해 11월23일 회고록 저자인 전씨가 사망한 뒤 부인 이순자 씨가 유산을 한정승인 하기로 하면서 이씨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와 공동 피고가 됐다. 5월 단체 등은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

했던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의 쟁점은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시민 암매장 등 5·18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다.

형사 소송은 헬기 사격 목적 진술을 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것이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로 범위를 좁혔다.

형사 소송 1심 재판부는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과 명예훼손의 고의성

이 인정된다며 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심 도중 전씨가 사망하면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민사 소송 1심 재판부도 전씨가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광주교도소 습격 등 23가지 허위 사실을 기재해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전씨 부자에게 각각 4개 5·18 단체에 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전씨 측은 “주관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항소했고 5월 단체도 1심의 일부 판단에 대해 부대항소를 하면서 2019년부터 항소심이 진행됐다. /오복기자

광복절 광주 도심 오토바이 폭주족 2명 체포

광복절 새벽에 광주 도심에서 이륜차(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한 일행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도심에서 오토바이로 난폭 운전한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0)씨와 B

(1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부터 3시30분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 등 도심 곳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2여대가 도심을 질주한다는 신

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일제 단속에 나서 신호 위반, 인도 침범 등 16건의 교통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A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광복절을 맞아 광주 곳곳을 오가며 교통 흐름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윤근기자

제사나라 www.jesanara.com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안전기원제 고사
▶ 시 제 상
▶ 제 사 상
▶ 고 사 상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